

진짜사장·진짜교섭

노조법 시행령 폐기!
원청 단체협약 쟁취!
금속 산별교섭 완성!
노동자 단결과 연대!

현대제철비정규직 현대제철내화조업정비 현대자동차아산사내하청 현대모비스 아산 천안 서산 아산물류 비엠아이

금속노조 원청교섭투쟁 본격 시동 자본의 무시 정부의 방해 모두 뚫고 간다

충남지부가 <충남지부 원청교섭 투쟁본부> (약칭 충남 원청투본, 본부장 이상호)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원청교섭 투쟁에 나섭니다. 올해 1월 20일 원청·모회사 사용자에게 2026년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한 8개 하청·자회사 지회 (현대제철비정규직, 현대제철내화조업정비, 현대자동차아산사내하청, 현대모비스아산, 천안, 서산, 아산물류, 비엠아이지회 조합원 3,600여명) 대표자들은 1월 28일 합동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교섭 요구 이후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전국에서 올해 원청회사를 상대로 교섭요구를 한 지회는 24곳, 7,000여명의 조합원에 달합니다. 교섭 공문을 접수한 원청회사는 13곳인데, 교섭거부 답변을 한 회사는 2곳(한화오션, 한화시스템)에 불과하고 나머지 원청회사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금속노조는 1월 29일 2차 공문을 발송하여 노조 교섭 요구에 대한 답변이 없는 이유를 묻고, 교섭에 응할 것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금속노조는 2월 시행령 폐기투쟁에 집중하고 3월 원청교섭 공동요구안과 지회별 요구안을 확정, 4월 금속노조 산별교섭 일정에 맞춰 일제히 상건에 돌입합니다. 원청회사가 교섭에 나오지 않으면, 그에 걸맞는 투쟁에 나섭니다. 사업장별 각각 대응이 아닌, 충남지역에서, 전국의 동지들과 함께 싸움을 만듭니다. 금속노조 중앙투쟁본부가 직접 투쟁을 지휘하며, 현장을 책임지고 지원할 것입니다.

충남원청투본은 2월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조합원들에게 개정 노조법과 원청교섭의 취지를 전달하고, 현장의 목소리와 투쟁방향을 나누기 위해 공동소식지를 발행합니다. 진짜 사장과 진짜 교섭을 하기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시행령 필요없다! 원청교섭 방해말라!

1월 27일 금속노조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 모든 지역에서 고용노동부 규탄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노동부를 상대로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는 노동부가 만들고 있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주장합니다. 노동부는 시행령을 손질하여 바뀐 노조법에 따라 원청교섭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만든다고 합니다. 현장을 전혀 모르는 소리입니다.



소수노조 교섭권을 박탈시키는 악법인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원청교섭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 노동부 시행령의 핵심입니다. 복수노조 사업장 동지들이 누구보다 이 제도의 병폐를 잘 알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노동부가 개정 노조법 취지에 따라 실제 원청교섭이 열릴 수 있도록 촉진자 역할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노동부의 임무는 교섭에 응하지 않는 사용자를 압박하고 교섭의 장에 끌고 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화가 되지 않으면 노사분쟁은 더욱 확대되고 오래갈 것입니다.

개정 노조법 시행일은 3월 10일입니다. 한 달 안에 시행령을 폐기시킵시다. 진짜 사장과 진짜 교섭으로 가는 길의 방해물과 걸림돌을 하나씩 깨부수며 나갑시다.